BOAZ에 지원한 동기를 서술해 주세요. (300자 내외)

제 취미들 중 하나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서 새로운 모바일 어플을 탐색하는 것입니다. 전부터 꾸준히 느끼고 있는 사실은 어플 중 상당수가 빅데이터를 활용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공공 데이터, 소비자들의 ID 정보와 리뷰 데이터 등을 적절한 알고리즘에 적용시켜 유용한 기능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현상이 현대 사회에서 데이터가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데이터 분석 기술 학습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아직 기초적 지식만을 가지고 있지만, BOAZ에서 훌륭한 팀원들과 함께 부족한 점을 서로 채워주며 발전해 나간다면 제가 그토록 원해왔던 빅데이터 지식, 앞으로의 제 여정을 함께할 동료들, 그리고 최종 컨퍼런스 프로젝트에서의 유의미한 경험과 결과물이라는 열매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빅데이터'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와 이후 노력한 사항을 구체적인 경험을 포함하여 서술해 주세요. (500자 내외)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빅데이터라는 분야에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가장 큰 동기는 마크 뷰캐넌의 ‘사회적 원자’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의 요지는 사회 속 사람들의 복잡해 보이는 행동과 상호작용에는 단순한 패턴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사회가 과학에서 말하는 하나의 물질이라면 인간은 원자, 책의 표현을 빌리면 사회적 원자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후로 빅데이터를 사용하여 인간 사회를 물리적으로 바라보고 패턴화 하는 사회물리학 연구에 큰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서적들 (‘구글신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세상 물정의 물리학’, ‘빅데이터 인문학’ 등)을 탐독했습니다. 대학 진학 후에는 더 실질적인 기술을 배우고 싶어서 코딩과 통계수업을 성실히 수강했습니다. 전문적인 것을 배우고 있다는 기분은 들었지만 여전히 이론적인 학습임을 깨닫고 일산병원의 보건 빅데이터 연구실에서 보조 연구원으로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이제는 BOAZ에서 다른 동아리원과의 학술적 교류와 자율적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한단계 더 성장하고 싶습니다.

본인이 진행했던, 혹은 해보고 싶은 빅데이터 관련 프로젝트를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세요. (500자 내외)

위의 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사회물리학, 그리고 복잡계 과학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해보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생각해본 것은 마크 뷰캐넌의 저서 ‘넥서스’를 포함한 다양한 책과 논문에서 주장하는 ‘전 세계 누구라도 다섯 사람만 거치면 나와 연결될 수 있다.’라는 패턴을 직접 확인해보는 프로젝트입니다. SNS, 그 중에서도 비교적 정확한 인간관계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페이스북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표본집단의 친구목록을 크롤링하고, 표본집단 간 연결고리를 친구의 친구, 친구의 친구의 친구 등으로 찾아내고 그 단계의 수를 세어 평균값을 계산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위 명제를 증명해보는 프로젝트입니다. 이외에도 허브가 존재하는 교통망, 언어학, 비즈니스 등 복잡계 과학이 숨어있는 사회의 다양한 현상들이 존재하므로 팀원들과 협의를 통해 충분히 흥미롭고, 우리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배운 지식들을 충분히 적용시킬 수 있는 프로젝트를 함께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학업 이외에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했던 다양한 경험 중 기억에 남는 것을 서술해 주세요. (500자 내외)

저는 빅데이터 이외에도 창업에 관심이 많습니다. 관련해서 올해 1월말 북경으로 Global Innovation Tour(이하 GIT)를 다녀왔습니다. 이 활동을 지금까지 살며 가장 열정적으로 했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가장 크고 확고한 열정을 불러일으킨 활동임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스타트업의 다양한 모습과 투자의 여러 단계를 분담하는 회사들을 직접 보고 활발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며 중국의 빠르게 성장하는 스타트업 문화를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정부 지원 아래 셀 수 없는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앞다투어 개발 단계에 진입하고, 빠르게 대중화되는 이상적인 과정이 중국에서는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젊은 창업가들과의 대화를 통해 외국인이나 노년층과 같이 중국의 기술력으로부터 소외된 이들을 배척하는 경향이 있다는 단점 또한 발견했습니다. 이후로 저에겐 모든 이들이 소외되지 않고 편리한 기술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스타트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다소 거창한 목표가 생겼습니다. 이처럼 GIT를 통해 저는 멋진 꿈을 가질 수 있었고 이후 당면한 일들에 더욱 열정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